

韓國 初妊婦의 心理狀態

~심신의 안전을 위한 연구~

<이화의대간호학과조교수> 하 영 수

韓國 初妊婦의 心理狀態에 관한 本研究는 1965년 6월부터 1967년 5월까지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產婦人科 및 同醫大 母子保健所,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產婦人科 및 同醫大 無料分娩 Center와 城東區 保健所 등에 등록된 初妊婦 244名에 대한 心理狀態를 妊娠初期부터 일어나는 妊娠中 精神의 不安, 恐怖感, 妊娠을 원한 또는 원치 않는 理由, 妊娠을 자각했을 때의 첫 反應 및 症候, 妊娠中 關心事, 男便에 대한 感情 및 性感의 變化등을 把握究明하여 부진한 産前管護에 있어서의 心理的 産前教育(Psychological education)을 肉體的 診療에 부가하여 보다 적극 臨床的으로 이를 보편화시키며 동시에 公衆保健增進에 공헌하고 母兒兩側의 心的 肉體的 安全福祉에 기여코자 한 것이다.

1. 初妊婦의 半數가 妊娠初期부터 不安 및 恐怖感을 가졌는데 그것은 教育程度가 높을수록(大卒 42%) 또 無宗教者일수록 더 많았다.

2. 妊娠에서 오는 不安 및 恐怖感

은 妊婦自體에 관한 것이 41%로써 胎兒에 대한 것(27%) 보다는 현저히 많았다. 妊婦自身の 不安感中 막연한 즉 理解缺如로 오는 不安이 제일 많았다(8%). 또한 妊婦自身에 대한 恐怖感으로는 難産에 대한 것이(11%) 제일 많았고 그 다음 流産, 早産 또는 異常妊娠(6%), 分娩時의 痛症에 대한 恐怖(5%) 등이었다.

3. 胎兒에 대한 恐怖感을 總括해 보면 妊娠을 원하는 妊婦에 있어서는 아기의 健康에 대한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기대가 가장 컸고(10%) 다음으로는 畸形에 대한 恐怖였다. 이와 반대로 妊娠을 원치 않는 妊婦들은 胎兒異常에 관한 소극적인 恐怖가(12%) 많았고 그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및 胎兒가 죽을까봐(死産兒) 겁이 난다(7%) 등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4. 初妊婦면서 妊娠을 원하지 않는 妊婦는 總妊婦數의 약 4分之1을 접했는데 그 원치 않는 이유는 經濟的 基盤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34%로 제일 많았고 新婚生活를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 28%로 적지 않았다. 此外 結婚前 同居生活狀態로 인한 羞恥感(11%)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事實은 結婚前 또는 結婚後 産婦人科的 相談을 우리나라에서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獨子의 妻인 妊婦中에서도 13%나 妊娠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5. 妊娠을 처음 자각했을 때의 反應을 보면 기뻐다 하는 妊婦들의 대부분(3分之2)은 妊娠을 원한 妊婦들이었다. 妊娠을 원하지 않는 妊婦에서도 기뻐다는 反應이 8%로 적지 않았다.

6. 妊娠된 줄 알게 된 첫 症候를 보면 無月經이 71%로 적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結婚前 性教育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며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서 結婚前 또는 結婚後의 産婦人科的인 管護 특히 避妊 내지 家族計劃에 대한 善導教育策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7. 妊娠中 關心事는 全妊婦數의 3分之1이 자기 몸 保護였고 그 다음으로는 專門醫와의 健康相談(22%) 및 營養問題(20%)였다.

이것은 産前 心理的 教育 및 善導가 焦點이 되는 것이다.

8. 妊娠中 性感의 調節은 性慾抑制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으로써(90%) 妊娠後半期調節 53%, 妊娠初半

期에 있어서의 性生活調節이 약 3分之1을 점하였고 나머지 10%는 전연 무관심하였다. 그들 性抑制의 理由를 보면 주로 그러한 性生活調節이 애기에게 좋다고 하는 것이 많았고(50%) 그 다음은 피로(18%)와 막연한 성조절(16%) 등이었다. 그 외에는 소수의 性慾의 감퇴(4%), 不感症(3%), 健康에 害롭다(0.4%) 등의 理由를 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妊娠中 특히 後半期에 있어서 性生活調節은 産婦人科 診지에서 産褥熱 豫防에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본다.

9. 妊娠中에는 확실히 妊婦의 氣반수(60%) 이상이 氣分이 憂鬱해지고 神經의 異常過敏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주로 妊娠初期에 발생(47%)하였고 妊娠後半期에는 소수였다(13%)는 점은 産前 心理的 教育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석사학위 수여

지난 3월 이화의대간호학과장 손경춘씨가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한편 이화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하영수씨도 이화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므로 이 두분의 석사논문들 소개했으나 지면상 겨우만 실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